

건축가의 합리적 개별해

Architect's Rational, Individual Solutions

이공희 / 원도시건축, 국민대학교 강사

by Lee Gong-Hee

건축이 갖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작가가 갖게 되는 가치 위계를 통해 선택되어진다. 프로그램이라는 물리적 가치와 건축적 제안이라는 조형적 의사의 쌍성(Duality)은 그 시대적 의사 안에서 그 폭만을 달리할 뿐 그 이원적 가치 자유성은 여전히 건축가의 업보인 셈이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입장열건축은 이 업보를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독자적 배경을 갖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건축입신과정이 독자적임으로 해서 어떤 대가의 영향 밑에서 거두어지는 선형적 틀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없고, 그럼으로 해서 건축의 이원적 가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입장열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가 그간 보여준 건축적 성과가 조형적 탐색이나 독창성과 신기성을 넘나드는 건축에 관심갖고자 함으로 한정한다면 그의 설계경기중 투시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읽어보고자 하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가 이루고 있는 설계경기와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적 성과보다 일관된 건축적 해결과정의 가치기준까지를 관심갖는 것이 그의 건축적 의사를 이해하는 데 가치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입장열건축의 데뷔는 82년 부산문화회관 현상 당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이력에는 매년 거름이 없는 크고 작은 현상에 건축적 제안을 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거름이 없는 선안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안다.

더욱 관심있게 되는 것은 그 현상의 성과의 대부분이 문화건축과 관청건축이라는 동질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법의 본질에 일관된 해결과정을 가질 뿐 각각의 매 프로젝트마다에 가치기준을 조절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건축가로서 합리성에 가치를 두는 모더니즘에 익어 있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합리적 조절 능력을 발휘함에 있다.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하남시청사 외에도 서대문구민회관에서 보여주는 대지콘터를 이용한 동선분리구법이라든지 이제 곧 완성을 보게 되는 양주문화회관의 전면콩코스를 통해 각각의 목적공간으로



하남시청사

의 동선분할이 건축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읽게 해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합리적 해석을 가치롭게 해주는 것은 프로그램의 조형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그의 건축에서 자주 보게 되는 확연히 읽혀지는 축의 설정과 외부공간의 콩코스의 조형기법이 그것의 일부가 되며 때로는 그 콩코스의 설정이 외부적 내부로 설정되기도 하여 아트리움이 되고 때론 내부적 외부가 되도록 하여 폐쇄적 광장이 되기도 하여 건축해결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개별해가 되어준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입장열의 건축은 프로그램의 합리적 해석과 조형적 조절 능력으로서 개별해법은 그의 건축적 구법의 일편이 되고 있다고 본다.

하남시청사, 그 건축어휘

물론 이 청사 역시 설계경기를 통해 기회를 갖게 된 프로젝트이다. 8,470평의 대지에 4,162평의 연면적을 시청사, 분리된 민원기능, 자치의회기능과 보건소기능으로 용적을 가지면서 전면에는 도시가로공원을, 배면에는 문화회관의 건립가능대지로 가능성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졌다.

어휘 - 축의 구축

입장열건축을 통해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어휘중에 하나는 확연히 드러나는 중심축의 설정이다 그 축이 동선을 담은 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도시적 콘텍스트를 소화해 내는 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형의 대칭연출을 위한 의도된 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선의 축으로 나타난 경우는 서대문문화회관이 그러하고 도시적 콘텍스트를 담은 축으로는 기장군청사설계 경기안과 김해문화회관현상안 등이 그러하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하남시청사의 경우 건축에 구축되어진 축의 성격은 도상으로의 판단은 관료적 선입관이 만들어진 축이라는 개연적 추측이 가능하리라는 예견은 그 광장에서 본 경험을 한 후라면 그것이 선형적 편견임에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전체조형을 지배하고 있는 건축적 의사가 축의 구축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광장을 자칫 산만해질 가능성을 갖는 분동들을 묶어내는 중심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전면진입레벨보다 몇 단 내려가 선공된 원형의 중앙광장은 진입 동선을 우회시킴으로 축의 구축보다 광장의 설정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장렬건축의 축의 구축은 전체배치계획의 기준이 되는 수단이 될 뿐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으로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이는 곧 대지 전체를 평면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만의 건축적 개별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 전체를 지배하는 기하학적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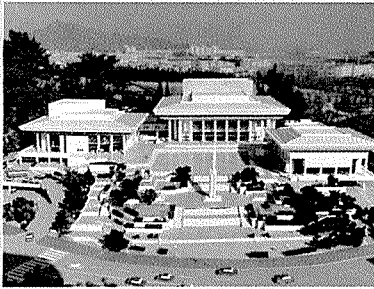
한 건축가가 자기만의 개념과 그 어휘를 만들

어가는 데는 대체로 그 건축적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후근대건축의 융성을 볼 시기에 더욱 그러했었고 그 미학적 기준만이 자유로울 뿐 건축에 있어 풍요로움이란 고전과도 같아서 어느 건축가이든 그 수단을 달리할 뿐 회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되어 왔다. 임장렬건축에서 이 풍요로움을 연출해 내는 수단을 전체를 묶어내도록 하는 기하학적 프레임과 부분에 배어있는 그것을 위한 절제를 근간으로 만들어 내는 조형을 그 기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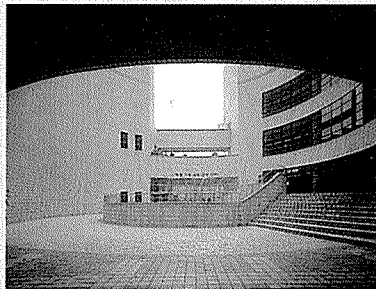
청사건축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프로그램적 상황의 상징적 이미지의 요구를 소화해 나가는 해결 과정에서 전술한 프레임은 설득력을 갖는다. 본관과 좌우측 보건소와 휴게 공간을 엮어내는 거대한 곡면 프레임은 상징적 이미지 성취와 함께 정제되어 군림하는 건축을 속도감있는 웅시(Fancy)한 건축으로 이미지의 보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내에 들어서도 그 평면적 운용은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 배분에 근거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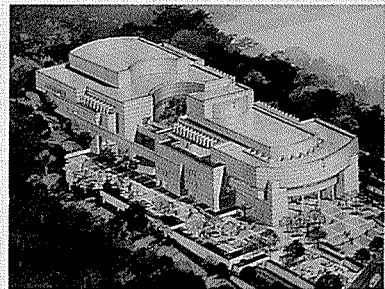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따라 있어야 할 곳과 그 용적의 과



부산문화회관



서대문문화회관



서대문문화회관

The diverse choices made through the process of architectural designing have their bases on the value system of the architect. The dichotomous conflict between program, a given physical value, and form, a value suggested by the designer, is ever present in the mind of an architect. We can find a different approach to this duality in the works of architect Lim JyangLyal. His unusual establishment in the profession through self-education arguably has freed him from rigid frames of view that hovers over this field.

But we are not merely talking about his design forms that reaches the boundaries of originality or freshness. Such discussion would be as limited as trying to select a first-prize winner in an architecture competition with a look through single perspective drawings. The value system that's behind the continuous architectural solutions in Lim's process of design should also be included in our survey.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his works, consisting mostly of projects submitted to competitions on culture centers and government offices that are constant in basic architectural solutions, show the adjustment of value systems in each cases. His way of arranging and controlling

his programs has roots in the rational methods of the Modernist movement. This is evident in the Hanam City Hall,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as well as in Seodaemun Civic Center and the soon-to-be completed Yangju-gun Culture Center, where circulations of programs are arranged by natural geography and concourse, respectively.

These rational comprehension of program can be further evaluated in searching through the process of their formation. Two aspects are often found in use among his works: the axis and the concourse. It is these characters that define the individual solutions of Lim's architecture, his rational analysis of programs and regulating the form.

The Architectural Language of Hanam City Hall

This work started out as an architecture competition. Site area of 26,770m², total floor area of 20,077m² was to be broken down into the main hall, individual civil affairs office, city congress center and public health center. The front was to place a street park and on the rear area was reserved for future construction of culture center.

소를 정해진 틀에 맞추어 조절하기보다는 기능과 용적대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후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구체적인 기하학적 원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해결방법을 갖는다.

본관1층에 들어서서 만나게 되는 각각의 기능들은 각각에 합리적 용적에 따른 형태로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홀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감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의 중심에 원형 오픈닝으로 마련되는 광장이 전제되어져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 역동적 양감의 표현의사

임장렬건축의 조형적 특징은 그의 사옥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사옥계획안 등 근간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 운동감의 표현의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의도되어진 의사인지 우연의 결과인지 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남시청사의 경우에도 수평선이 지배하는 입면 처리는 속도감의 근거가 되어 용적 자체가 볼드한 양감을 가지므로 해서 그 역동적

표현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여 주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접근하는 지면층레벨에서 본관의 평면처리하는 그 축을 흡입하면서도 그 상층부의 처리는 진입축에 대응하는 양감을 갖는다는 점이다. 청사건축에서 흔히 보여지게 되는 수직적 분절 대신 수평적 분절을 택함으로써 정적조형에서 동적조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격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되어져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역동적 용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본관을 잡고 있는 양측의 수직 동선을 해결하는 계단 원형사프트는 횡적운동감의 중점의 역할을 하면서 역동적 매스의 조절 능력을 갖는다.

역동적 양감의 성취를 위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건축의 4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면부의 셋백(Set Back)장치이다. 진입부의 중정의 형태를 구체적 형상이 되도록 하는 캐노피가 그러하고 배면부의 식당과 대회의실의 수직관계가 그러하다.

상층보다 지면층을 작게 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전체 용적이미지가 역동적 양감이 되도록 하는 해법이다. 하남



양주문화회관



기장군청사



기장군청사

The Establishment of Axis

Whether it places the circulation, adjusts the urban fabric, or forms a symmetrical lay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xis is clear in most of Lim's works. The first use of the axis can be seen in Seodaemun Civic Center, and the second in the competition entry projects of Gijang Civic Center and Kimhae Culture Center. In the case of Hanam City Hall, the established axis can be misunderstood as a result of an official stereotype - only before a walk through the concourse. This experience clearly reveals that the axis connects the divisions of the hall and forms a central space in the overall plan. The sunken, circular concourse detours the approach circulation, which is apparently the result of valuing the use of concourse over forming an axis. This exemplifi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xis is not a dominating concept but a tool of arranging the layout. It also demonstrates that Lim approaches his site in full three dimensional scale, not as a plane.

The Geometrical Frame That Controls The Overall Layout

The development of an architect's own concept and language usually lays value on richness. Whichever aesthetic it may adapt, richness has been the aim of architecture through all ages. This is realized in Lim's works by the application of overall regulation - the geometrical frame. This frame is especially effective in the government office, where symbolization of the program is necessary. The grand curved frame formed by the main hall, health center and rest area not only fulfills the requirement for symbolic images but also breaks that rigidity by contemporary speediness.

The process does not start from arranging location and area of the program but from logically dividing the function and volume and then uniting them via the application of frame. For easy recognition of the users, the frame in Hanam was mostly geometrical circles. The diverse programs i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hall are given shapes according to their rational volumes. Nevertheless, the whole can be recognized as a single space, due to the dominant atrium with a circular opening placed in the center.

시청사의 건축적 해결개념이 역동적 양감의 조형의사의 그 적 절성을 간단히 이야기함은 어렵겠지만 전술한 바와 관료건축의 일반적해법과는 또 다른 접근이 되어지고 있다는 상대적 희소 성에 의미의 비중을 둘 때 논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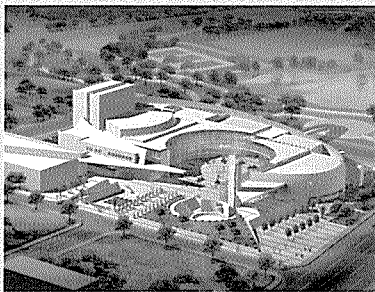
임장렬건축의 기대

전술된 임장렬건축의 어휘들은 하남시청사에 한정하기보다는 그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그의 지속적 의사에 의해 일관된 건축해결과정에서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치로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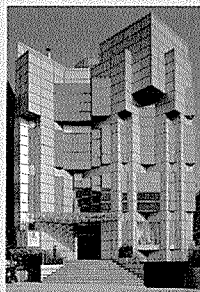
비록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이 실제적 역사안에서 계속 그 질은 변화하지만 그것이 곧 진보를 보장하 지는 않는다는 점과 한 건축가가 대단히 특별한 초시대적 의사 를 갖추었다든가 아무리 덧없는 현실을 초월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표현한 조형 역시 그가 갖는 시공의 공감대 속에 형성된 의미체계와 사유변경의 한정에 귀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된 임장렬건축이 보여주고 있는 건축적 의사와 건축적

어휘들은 분명 장구한 시간성의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일관된 조형의사로서 의미를 갖추게 될 것이다.

사실 건축이란 어떤 필연성의 결과물이라기보 다는 객체의 실험일 수도 있다는 구속력을 들지는 않더라도 건 축가 자신이 택하고 경험케 되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할 수 있다 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대는 임장렬 의 건축의 성립 과정이 자생적 과정을 가졌고 건축의 기획의 대 부분을 건축가가 먼저 그 생각을 제안하는 설계경기에 두고 있 는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은 외풍으로 얼룩지고 있 는 국내설계경기의 현실에서 이 시대의 합리적 개별해를 갖추 어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향로가 계속 순환 되어 지길 기대한다.



김해문화예술회관



성림건축사옥



도시개발공사사옥

The Expression of Dynamic Volumes

From his own house to the recent Urban Development Agency Office project, the will to express dynamic movement is clearly present. Though it could be a matter of coincidence, the elevation of his works emphasizes horizontalness and consists of bold volumes.

A point further developed in Hanam City Hall is that the ground level follows the axis of approach, but the higher levels contradict them. The usual vertical divisions of government offices is here replaced by a horizontal one, presenting dynamism while insuring a refined style. A circular staircase shaft and setback volume layout on all sides enhances the dynamic design. The canopy that reveals the shape of the atrium and the vertical relation between the cafeteria and convention room can also be viewed from this respect. The placement of heavy volumes on the upper level, reacting against gravity, could single-handedly exemplify the individual solution of Lim's work, thoroughly distinguishable from the usual official buildings.

Conclusion

The above mentioned architectural languages of Lim are not confined to the Hanam City Hall. They should rather be comprehended as a sign of consistency in his designing solutions. The change of quality through time does not necessarily mean advance. An architect, even the most radical avant-garde, creates forms bound within the formal languages of its era. In this respect, it could be understood that Lim's consistent architectural style is based on the cognition of time's permanence.

Architecture is not a result of inevitability. It is rather an experiment of subjectivity, beyond restraint. An architect should stick to and be true to his own developed concept. Lim can be rightly judged so by the self-taught background and his persistence in architectural competitions, where the architect can put forward his own ideas. Through today's competitions, disordered with overblown foreign involvements, may the vigorous freshness of his individual solutions cruise on.